

0.4 ARTIST STATEMENT KOR / EN

강이연

JAN 2022

몇 년 전, 고작 1.5 라는 작은 숫자에 지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망연자실함을 기억한다. '1.5'가 의미하는 바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 도를 넘지 않아야만 지구 생태계 삶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최근 단 10 년(2011~2021) 간 지구의 지표면 온도는 1850~1900 년 표면온도에 비해 1.09 도 상승했다. 현재 인류 삶의 패턴이 과감히 변하지 않는다면, 2040 년에 1.5 도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각 사회가 지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인종·계층적 문제점들을 첨예하게 표출했을 뿐 아니라, 인류와 지구 간의 불편한 관계들을 가차없이 드러냈다. 인류의 진보는 자연의 상실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자연의 동의 없는 희생을 딛고 우리는 팽창해 왔음을. 예견된 이 사태를 오랜시간 동안 묵인한 결과로, 우리는 유례없는 '인간 대 자연'의 대재앙의 시대를 맞이했다. 코로나는 그 재앙의 시대의 서막일 뿐이다. 이미 인류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대규모 산불, 생태계 파괴, 바이러스 창궐, 식량 위기, 해수면 상승을 초래했다. 기존 생태계의 붕괴와 환경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기후 위기는 다가오는 수십년 안에 지구 생태계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1.5 도가 넘으면, 세계 인구 절반의 삶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인간 체온도 정상에서 1 도를 넘으면 신체에 문제가 생기고, 1.5 도를 넘으면 고열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구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이 망연자실 했던 건, Digital data 나, bitcoin 주가처럼 끝없이 팽창하는 인공적 숫자들에 현혹된 채 인간과 자연이 그 무엇보다도 닮아있다는 그 명료한 진실을 까맣게 잊고, 무한 팽창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생명의 논리로 human 과 non-human 을 다시 연결하고 scaling 하여, 인간과 환경의 상호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에게 남은 건 고작 0.4 만큼이다.

본인의 작업 0.4 는 신비한 생명력을 지닌 자연의 모습과 '1.5' 이후를 상징하는 불편한 모습을 그린다. 작업은 'warming stripe'¹ 을 거대한 화면 가득 채우며 끝이 난다. 이는 우리의 현주소를 상기한다.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0.4 가 함축하는 의미를 헤아려 보는 것이 인류를 치유하고, 자연을 치유하고, 우리의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예술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더라도, 우리를 이끄는 영감이 될 수는 있다고 믿는다. 2022 년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는 이 프로젝트가 우리를 포함하는 biosphere 의 치유를 향한 아주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¹ Warming stripes(가열화 줄무늬)는 영국의 리딩대(University of Reading) 기후과학자 에드 호킨스(Ed Hawkins)가 개발한 줄무늬 패턴으로 세로 막대 1 개가 1 년을 나타낸다. 온도가 하락할수록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상승할수록 진한 빨간색으로 표현한다. Warming Stripe 는 매우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가열화 되고있는 지구에 대한 심각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

0.4

I remember the devastating feeling that I had a few years ago when I learned that the life of the Earth depends on the value '1.5' that seemed infinitesimal. What '1.5' means is that life in the ecosystem is maintained only whe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rise does not exceed 1.5 degrees compared to the pre-industrial revolution age's temperature. The latest research shows that the global surface temperature from 2011 to 2020 have increased 1.09°C than that of 1850-1900. If the current pattern of human life does not change drastically,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Earth is expected to exceed 1.5 degrees by 2040.

The Covid-19 not only exposed the social, political, economic, racial, and hierarchical problems of each society but also revealed uncomfortable relationships between humanity and the Earth that human progress was based on the loss of nature. We have expanded over Nature's sacrifices without its consent. As a result of our long-term exploitation, we have entered an unprecedented age of "human-to-nature" disaster. For me, Covid-19 seems to be just the prelude to the catastrophe era. We have already resulted in massive forest fires, ocean acidification, virus outbreaks, food crises, and rising sea levels that threaten our survival. The collapse of the existing ecosystem and environmental changes will accelerate further, and the climate crisis will eventually determine the survival of the global ecosystem in the coming decades. If it exceeds 1.5 degrees Celsius,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s life could be no longer guaranteed.

If the human body temperature exceeds 1 degree from the average, the body starts to ache, and if it exceeds 1.5 degrees, it could develop serious damage. The same goes for the Earth. It is frustrating that we are pursuing infinite expansion, ignoring the obvious truth that humans and nature resemble more than anything else. Rather than acknowledging this simple truth, we are overwhelmed by limitlessly expanding artificial values such as stock market and Bitcoin data as if there is no limit in exploiting nature. It is imperative to re-connect and re-scale human and non-human beings with the logic of life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s and the environment. All we have left is 0.4.

My work '**0.4**' depicts nature's mysterious energy and captures the uncomfortable scene that symbolizes what would possibly happen after '1.5.' Then, the work ends by filling up a huge screen with the 'warming stripe'. This is to remind us of our current status quo. Healing only for humans is no longer meaningful.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of 0.4 can be a clue to healing humanity and nature together, and enabling our future.

Even if it cannot be a practical solution to change our future, I believe that art can be an inspiration to guide us. I hope this project launching at the beginning of 2022, will be a small step toward the healing of the biosphere that includes us.

[1] Warming stripes are data visualization graphics that use a series of coloured stripes chronologically ordered to visually portray long-term temperature trends. It is originally published by the climatologist Ed Hawkins.